

소련출판에도 개혁의 바람 있다

모스크바의 책과 서점, 그리고 도서관

배병삼

충남대 강사·정치학

지난 5월 19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의 일차적 목적은 모스크바 근교의 공산청년대학(지난 4월 이후 '청년연구소'로 개칭)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의 참석이었다. 7일간 계속된 세미나의 주제는 '새로운 정치적 사고와 현재의 청년문제'였는데, 우리로서는 페레스트로이카로 상징되는 현재 소련사회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깊은 관심을 보인 반면 소련측 참석자들은 한국내의 격렬한(?)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의 실상과 그 전개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가운데 틈틈이 시내를 배회하면서 기층의 생활상을 확인하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언어의 장벽도 문제거리와, 대개 근래에 소련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 공통되는 문제라고 여겨지지만, 몇 가지 일화에 바탕한 단편적 지식과 신문에서 주위들은 기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전정보의 불備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는 기껏 주마간산의 피상적인 인상기에 그치게 하거나, 또는 자칫 개인의 감상적 견해가 개입됨으로써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위험이 큰 것이다. 필자로서도 독서문화와 관련된 사전지식이라면 언전에 어느 잡지에서 소개된 우스갯소리 정도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활자화된 소련의 출판물들에 식상한 손자녀석이 매양 유인물로 회람되는 지하출판물만을 탐독하자, 공식적으로 출간되어 있는 톨스토이 작품들조차 할머니가 밤새 유인물로 만드느라 곤욕을 치른다는 이야기였다.

'상상을 절할 정도로' 싼 책값

소련에 도착하고나서 맨먼저 둘러본 곳이 모스크바 중심부에 위치한 '프로그레스(progress) 서점'이었다. 3층으로 이루어진 널찍한 매장에 주로 외국어로 출간된 소련서적들이 비치되어 있었다. 이 서점은 외국어도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프로그레스출판사의 직영서점으로서 그 출판사의 출판물들에 관한 보급충만을 맡고 있는 듯했다. 한편 비치된 책들의 종류는 그다지 다양한 편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사회과학 도서들과 유물사관에 기초한 역사서적들이었는데 특히 마르크스-엔겔스의 저작들과 레닌과 관련된 책자들, 그리고 최근 페레스트로이카와 연관된 고르바초프의 연설문들 및 각종 팸플렛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외국 방문자의 입장에서 가장 인상에 남은 것은 이들 책값이 '상상을 절할 정도로' 싸다는 점이었다. 가령 영문판 레닌선집 1권은 840쪽의 두터운 양장본이었음에도 가격은 2루블 정도에 불과했다. 책값에 관한 한 약간의 설명이 곁들여져야 할 것 같다.

우선 소련의 대학교원 초봉이 200~250루블이라니 우리 대학교원의 초봉을 80만원쯤이라고 상상한다면 2루블의 책값은 우리 돈으로 대략 6~7천원의 값어치를 가지는 셈이니 그렇게 상상을 절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만약 소련의 기묘한 환율구조를 고려한다면 상황은 사뭇 달라진다.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나라치고 암달러상으로 상징되는 이중적 환율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얼마나 되랴마는 소련의 경우는 그 정도가 자심했다. 국가의 공식환율이 1달러 대 0.6루블인데 비해 암달러시세는 1달러 대 12루블 내지 14루블이었으니까(90년 5월 기준) 그 차이는 가히 하늘과 땅의 차이에 비길 만한 것이리라. 민주화물결의 부작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내도처에서 이러한 암달러상을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았다는 전제에 동의한다면, 책값을 1달러 대 12루블쯤으로 계산하는 데는 별다른 반대가 없으리라 여겨진다. 이는 美貨 1달러를 가지고 840쪽 두꺼운 양장본을 6권가량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돈 700여원으로 5000여쪽에 이르는 서적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정도라면 아마 '상상을 절한' 환호성을 울리지 않을 책상물림은 없을 터이다. 다만 이렇게 저렴한 가격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범죄행위(?)인 암거래를 통한 환차익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또한 생활필수품과 이에 준하는 물품에 대해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부기할 필요가 있겠다.

도서공급과 소비의 현격한 괴리

출판물들은 모스크바 중심가의 대형서점들과 근교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서점들, 그리고 이동서점들을 통해 소화되는 것 같았고 도심에는 잡지나 신문 등 가벼운 읽을 거리를 판매하는 설치물들이 가끔 눈에 띄었다.

한편 소련의 도서출판은 역시 들었던대로 계획에 의해 생산·유통되고 있었다. 즉 구매자들의 好惡에 거의 관계없이 수립된 계획에



모스크바 중심가의 자유시장. 오른쪽 끝의 소형버스가 이동서점이다.



모스크바의 '프로그레스' 서점 매장중경. 외국어로 출간된 소련서적들이 전시, 판매되고 있다.

의해 생산되며 일단 생산된 도서는 서점에 그대로 전시되고, 또한 계획량이 달성된 도서는 더이상 생산하지 않는 것이 상례였다. 때문에 구매력이 없는 책자는 그대로 먼지에 쌓여 재고로 계속 남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인 반면 불티같이 소화되는 책이라 할지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再版을 찍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결국 작가의 집필과 서적의 생산, 그리고 독자의 욕구라는 출판유통의 3박자가 제각각 놀다보니 도서의 공급과 소비간에 현격한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소련에서 출판되는 도서량은 연간 9만여종에 총 부수는 25억부에 이른다고 한다. 가히 천문학적 수에 달하는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책 기근현상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데 소련 출판계의 고민이 존재하고 있었다. 傳聞에 의하면 3, 40년 전만 해도, 공장의 굴뚝연기가 마치 산업화를 상징하듯 책 기근현상은 오히려 문화적 수준의 발전을 상징하는 척도로 여겨지곤 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소련의 출판 전문가들은 출판용 종이공급의 부족이나 인쇄시설의 노후화와 같은 하드웨어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유통구조에도 초점을 맞추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많은 책들이 생산되고는 있지만 이들이 독서인들의 기호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책의 판매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작가와, 내용의 질에 관계없이 계획에 따라 출판하기만 하면 되는 출판계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였다. 이는 소련 출판계의 두통거리인 표절을 일삼는 기생작가들(parasites)과 저질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주요원인으로 지목된다. 나아가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아류작가들은 '편안한 창작생활' (?)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질서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원치 않는 확고한 보수주의를 견지함으로써 또다른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 있다.

32만6천개소에 달하는 도서관

여기서 최근 소련 독자들은 신간을 출간할 때 우선 1000권쯤을 시험출판하고 나서 이들이 소화되는 요량을 지켜본 이후에 본격적인 출간을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 다른 이들은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출간하는데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을 채택하자고 제안한다.

현재 소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직업작가



모스크바 시내 '평양식당' 근처의 가판대. 각종 잡지와 신문 등 가벼운 읽을거리가 취급된다.

인 '소련작가동맹'(The Union of Soviet Writers)의 구성원은 약 1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만약 작가들이 스스로 출판의 책임을 지게 된다면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파산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럴 경우 참된 의미에서 작가동맹에 남을 작가는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책의 소비에 있어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 도서관 시설인데 자료에 의하면 소련의 도서관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여겨진다. '90년판 「소련연감」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32만 6천개소의 각종 도서관에 총 56억권의 장서가 소장되어 있다. 이 가운데 모스크바의 레닌도서관은 247개 언어로 간행된 3천 6백만권의 장서를 갖춘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라고 자랑이 대단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이용실태를 지켜볼 기회는 갖지 못했다.

한편 소련 출판인들이 꼽는 제일의 숙원사업은 소련의 각 가정에서 최소한의 국내 및 세계의 고전작품들과 참고서적들과 사전類를 원활히 공급하는 일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마야코프스키 저작집 6백만부가 상재되었고, 현재는 3권으로 구성된 푸쉬킨 저작집 1천 1백만부를 찍고 있으며, 차후 독자들의 요구를 보아가며 무한정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나아가 고전綴에 속하는 고르키,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체홉 등의 작품들과 몇몇 외국작품들도 제작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소련의 베스트셀러로서는 최근 수년간에

걸쳐 매년 325만권씩 판매되는 1권짜리 「소련 백과사전」을 꼽을 수 있겠고, 이 사전에 이어 베스트셀러群을 형성하고 있는 몇 종의 책을 든다면, 「소련철화집」 「알기쉬운 의학사전」 「가정백과 콘사이스」 등이 있다. 그리고 최근의 기획출판물로는 '청소년 총서'를 들 수 있겠는데 20권으로 이뤄질 이 총서의 첫째권은 1987년에 이미 햇빛을 본 바 있다.

그러나 소련 출판인들은 아무리名著와 古典들을 대량으로 출판하려 하더라도 저질작품의 출간을 막을 방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한다. 앞서도 지적했다시피 저질 작품들이 구매력과는 상관없이 출판됨으로써 계획된 출판자재를 잠식하고 이로 인해 실제로 독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서적들의 출판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고충이 그것이다.

그러나 소련사회 전반에 조용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은 어김없이 출판계에도 닥치고 있는 듯했다. 그 징표가 1987년부터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출판사의 자율적 經理와 自費出版으로 보였다. 소련의 출판인들은 이러한 시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듯했다. 즉 이러한 제도가 보다 빨리, 그리고 보다 완벽하게 시행된다면 저질작품의 출간은 도태될 것이고 그러할 때 수백만의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원하는 책을 사 볼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작품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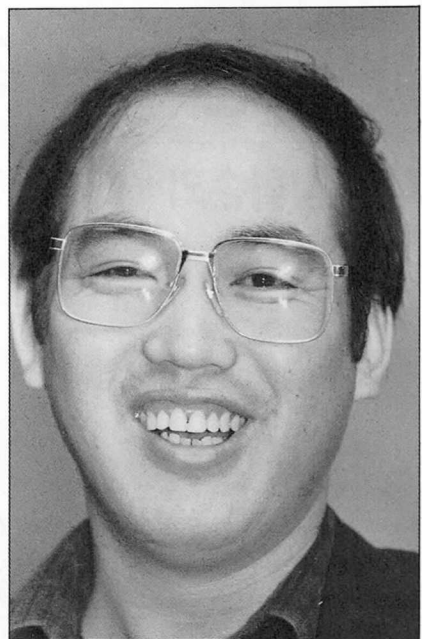
격동의 현대사, 그것과의 맞섬

장편 「우리 청춘의 푸른 옷」

김영현

소설가

전후 일세대라 불리우는 우리세대들이 커다란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자랐고, 어떤 꿈을 꾸었고, 어떤 사랑을 하였는지, 이제 그리고자 한다.



작품이랍시고 쓴 지가 얼마되지 않았지만 정말 산 너머 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고개만 넘으면 좀 쉬어도 될 것도 같은데 바라보면 저만치 또 하나의 산이 서서 나를 부른다.

지난 한해동안 나는 단편소설만 거의 10여편을 발표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이러한 왕성한 발표력에 찬사를 보냈지만 알고 보면 내 엉덩이 밑에는 쓰다만 습작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것이 지난 일년간 나를 먹여 살려준 썸이다. 그리고 나서 그 발표작들을 묶어 한편의 책으로 펴내고 나니 만족감 보다는 우선 허탈감이 나를 사로잡는다.

아마도 저만치 서있는 새로운 산이 손짓해 불러주지 않는다면 필경 절필선언까지는 하지 않아도 자연히 절필이 되고 말 터였다. 하지만 작가란 자기 시대에 주어진 역할에 맞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말하고,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써야 한다. 탄압에 의한 저항의 한 형태로서의 절필이 아닌 한 어떠한 절필선언도 모두 임무방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다시 새로운 산을 향해 기어오르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것이 이번에 일부를 발표하기 시작한 장편소설이다. 「우리 청춘의 푸른 옷」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이 소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단편소설에 다 담아 낼 수 없었던 정서와,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아낼 큰 그릇으로 기획된 썸이다.

나는 전쟁의 포연이 막막 사라졌지만 아직도 발고랑에 혹은 야산 발치에 폭탄이나 총알이 숨겨져 있던 전쟁 직후에 태어났다. 바로 그러한 황폐한 땅 위에서 우리는 마치 잡초처럼 뿔뿔하며 자라났던

것이다. 나는 전후 1세대라 불리우는 바로 우리 세대들이 그러한 커다란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자랐고 어떤 꿈을 꾸었고, 어떤 사랑을 하였으며, 4·19, 5·16, 유신 등의 격동을 어떠한 형태로 맞고 있는가 하는 점을 그려보고자 한다. 물론 이 소설은 역사소설은 아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때로는 역사와 정면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 갈등하고, 성숙해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코 역사소설이라 부르고 싶지는 않다. 나는 작가의 과도한 의식성이 작품 속에 드러나는 것을 무척 경계한다. 작가는 작품 속에 나오는 개개의 인물을 창조하지만 동시에 그 인물들은 자기의 독자적 삶을 가지고 작가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나는 유년기를 그릴 때는 그야말로 유년소설로, 청년기를 그릴 때는 청춘소설로 매 시기 인간의 삶을 충실히 재현해 보고 싶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이건 귀중하지 않은 삶이 없듯이 한 인간의 삶 중에서 어떤 시기도 귀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을 것이다.

자전적 요소가 강한 이 소설은 1982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따로따로 분할된 4~5편의 部로 나뉘어져 있고 각 部는 독립성을 가지되 전체적으로 하나이다.

나는 앞으로 이 소설이 얼마 만큼의 분량으로 썸여질지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이 바쁘기 짝이 없는 시간 속에서 바늘 틈만 한 소설 쓸 여유를 갖는게 일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점점산중인데 자꾸 발걸음만 무거워진다.